

설득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논리적 오류와 극복방안

I. 들어가는 말

II. 합리적 논증의 장애물

1. 조직에 기인한 사고
2. 편견
3. 자기기만
4. 변화에 대한 두려움

III. 오류의 종류와 극복방안

1.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Argument from Ignorance)
2. 원칙혼동의 오류(Misuse of Principle)
3. 정황적 오류(Fallacy of Circumstantial Argument)
4. 피장파장의 오류(Fallacy of Tu Quoque)
5. 다의어 사용에 의한 오류(Fallacy of Equivocation)

IV. 좋은 논증을 위한 합리적 사고방법

1. 논증의 타당성 · 건전성 점검하기
2. 5Whys, '왜 그렇지?'라고 질문하기
3. 'MECE' 방식으로 사고하기
4. '로직트리(Logic Tree)'로 쟁점의 구조 파악하기

V. 맺음말

설득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논리적 오류와 극복방안

I. 들어가는 말

신뢰할 만한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논증은 말의 내용을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만든다. 그래서 논증은 언어적 표현의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내용으로 설득력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다. 또한 자신의 견해를 합리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설득의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논증은 ‘잘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옳은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¹⁾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논증을 통해 설득에 이르는 과정에는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 전제와 결론의 논리구조를 잘못 파악하거나, 신뢰할 만한 전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불완전한 논증을 펼치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합리적 논증과 설득을 방해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양한 오류의 종류와 그 극복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는 올바르게 주장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논증을 위한 사고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잘못된 논증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두면 실수를 피할 수 있고, 올바르게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오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오류 발생의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를 접해봄으로써 논리적인 사고와 설득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논리와 설득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거나 미처 생각지 못한 오류를 범하여 설득 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이창후, 2011, 『나를 성장시키는 생각의 기술』(소울메이트), 26쪽.

II. 합리적 논증의 장애물

인간을 합리적인 추론가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주로 조직적·개인적 차원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적 논증을 방해하는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 사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1. 조직에 기인한 사고

사람은 고립되는 것을 싫어하고 무리지어 살려고 하는 집단본능을 가지고 있다. 집단본능에 의해 사람은 어느 집단의 일원이 되어 다른 구성원들과 교류하면서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고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도와 문제해결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합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특히 어떠한 책임이나 이익과 관련하여 조직 내·외부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지나치게 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사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주어진 대안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집단이 선택한 대안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설령 한 구성원이 조직의 비합리적인 결정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발설할 경우 집단으로부터 비난·제재·소외 등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면 된다’식의 분위기가 집단 내에 조성되면 의사결정자가 무모한 위험성을 감수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은 비현실적인 결정에 쉽게 동의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집단적 사고에 기인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아이디어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집단 사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²⁾

2) 조직에 기인한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안병진·김상익, 2012, 『문제해결의 통합적 이해』(한나래), 161쪽을 참조했다.

2. 편견

편견은 합리적인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특정집단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단지 그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나치게 단순하고 부정적인 특징을 부여하게 되어 편향적으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이 불러온 오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한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신사복을 입은 흑인과 면도칼을 든 백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나서 그 사진을 회상하도록 요청했다. 실험 결과 많은 사람들은 백인이 신사복을 입었고 흑인이 면도칼을 들고 있었다고 회상했다.³⁾ 이것은 실험 참가자들이 흑인과 백인에 대한 자신의 편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면서 사진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견은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책임의 상당 부분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는 희생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⁴⁾ 제국주의 세력이 식민지 민족들에게 부여했던 부정적인 편견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앵글로색슨족이나 아리안족은 문화적·생물학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민족들에게 멍청하고, 단순하고, 게으르다는 편견을 부여함으로써 식민지 통치 행위를 정당화했다.

좋은 추론가는 자신 안에 내재된 경향성, 즉 어떤 대상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경향성을 배제하고 현재 자신이 가진 정보만을 신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3. 자기기만

자기기만은 스스로를 속인다는 뜻으로, 자신의 신조나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무의식중에 행하거나 의식하면서도 강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⁵⁾ 이러한 자기기만은 민

3) 이 사례는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학지사), 288쪽.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견과 집단의 문제 : 사회심리학을 중심으로,”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3쪽에서 재인용 하였다.

4) 이 사례는 Cavender, N. and H. Kahanne, 2013, 『논리와 현대화술』, 김태은 역(씨아이알), 200-202쪽을 참조하였다.

5)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main.jsp>(검색일: 2014. 11. 20.)

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소망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며,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예측이나 주장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기도 한다.

쟁점이 되는 사안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론은 편파적이기 마련이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의 하워드 라이파(Howard Raiffa)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 보았더니 이런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⁶⁾ 그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한 그룹에게는 기업을 사기 위한 협상을 하도록 권유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 기업을 팔기 위한 협상을 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각 그룹에게 그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실험 결과 회사를 팔려는 집단은 공정하게 평가된 시장가치보다 30% 정도 높게 값을 책정했고, 사려는 집단은 30% 정도 낮게 책정했다. 각 그룹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자신을 기만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변화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다.⁷⁾ 현재 상태를 바꾼다는 것은 곧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결과에 따라 비난이나 후회를 감수해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다.

공무원 집단의 경우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풍토가 있다.⁸⁾ 무난함이 행동 준거가 되어 정책이나 조직 변화에 있어 항상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굽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또는 ‘상황이 좀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6) 이 사례는 Stone, D., 2003, 『대화의 심리학』, 김영신 역(21세기북스), 62-63쪽을 인용했다.

7)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내용은 안병진·김상익(2012), 163쪽을 참조했다.

8) 이 사례는 고바야시 유타카, 2002, 『문제해결력을 기른다』, 이왕호 역(지식공작소), 45쪽을 인용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잘 나타난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온 하나의 패러다임에 대항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 많은 반발과 저항을 받게 된다. 설사 새로운 패러다임이 명확히 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며 천동설에 반기를 들었다.⁹⁾ 천동설은 당시 기독교적 우주관과 일치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럽의 우주관이었으며 진리로 여겨졌다. 이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지동설에 대해 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우매하고 신학적으로 이단적’이라고 비난했고, 추기경위원회는 갈릴레이에게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고 돌지 않으며, 지구는 돌고 있다는 견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지금부터 말과 글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견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옹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1633년 다시 교황청에 소환되어 형을 받았다. 종신 가택연금을 비롯해 사후 장례식도 못하고 묘비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세상의 진리로 여겨졌던 것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는 데는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과거부터 형성해 온 사고의 틀 안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력 발휘를 제한해 합리적 논증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옳다고 여겨지던 수많은 사실에도 의심을 품는 회의적 자세와 비판적,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Ⅲ. 오류의 종류와 극복방안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유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오류의 유형을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흔히 범해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원칙혼동의 오류’, ‘정황적

9) 이 사례는 이상현, 2011, 『답은 밖에 있다』 (쌤앤파커스), 85-86쪽을 인용했다.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 ‘다의어 사용에 의한 오류’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Argument from Ignorance)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란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제를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거짓이라는 근거를 들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제를 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¹⁰⁾ ‘그것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논증에 해당한다.

한 예로 A회사 직원들이 회사가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를 감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¹¹⁾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A회사는 이 발표를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드러난 사실만으로 볼 때, A회사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회사가 사적인 대화를 감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 그 의혹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논증의 대상이 되는 쟁점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그 시안을 입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만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혈액 검사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¹²⁾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면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제로부터 올바르게 추론되었기 때문이다.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¹³⁾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 설득의 당사자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논리가 명쾌해진다. 주장을 하는 쪽은 반론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주장을 펴야 하

10) 송하석, 2010, 『리더를 위한 논리훈련』(사피엔스), 188쪽.

11) 이 사례는 정재환·신소혜, 2012, 『논리 속의 오류, 오류 속의 논리』(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66쪽을 참조했다.

12) 이 사례는 Cavender, N. and H. Kahane(2013), 128쪽을 인용했다.

13)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은 EBS제작팀·김종명, 2009, 『설득의 비밀』(쿠폰북), 215-217쪽을 참조했다.

고, 반론을 피는 쪽도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 것인지 예상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줄 수 있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

2. 원칙혼동의 오류(Misuse of Principle)

원칙혼동의 오류란 일반적인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임에도 일반적인 법칙을 적용하여 추론하는 경우¹⁴⁾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법칙은 참이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이 된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일반적인 법칙들을 적용하지 않아야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 2008년 경기도의 소도시에서 한 남성이 동생의 아내와 조카딸을 엽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¹⁵⁾ 문제는 관할지구대가 사냥용으로 허가·보관해왔던 엽총을, 정신병원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사람에게 별다른 고려 없이 내주었다는 점이다.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에게는 총기허가가 금지돼 있지만 수렵기간 동안에는 총기 출고가 자유롭다는 일반규정을 적용해 관할지구대가 엽총을 내준 것이다.

총기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말긴 무기라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되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특수한 법칙을 적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관할지구대는 특수법칙을 적용해야 할 상황에 일반규정을 적용해 원칙혼동의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묵적 합의를 이룬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문제의 성격과 상황이 완전히 다름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원칙만을 적용하여 주장을 펼치거나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두 가지 원칙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상황 정보들을 신중하게 살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이 가능한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 특수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지,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할

14) 정재환·신소혜(2012), 184쪽.

15) 이 사례는 정재환·신소혜(2012), 185쪽을 참조했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을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황적 오류(Fallacy of Circumstantial Argument)

정황적 오류란 어떤 주장이나 행위를 그 내용과 관련된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처해 있는 정황을 이유로 비판하거나 일축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⁶⁾ 논증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논증을 펴는 사람의 특정한 상황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발생한다. 상대방의 논증을 비판하거나 공격할 때에는 그 논증과 관련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논외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논증과는 관련 없는 상대방의 특별한 처지나 상황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 나가면 이는 올바르지 못한 논증이 되어 결국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를 두고 여러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A지역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이 신공항 유치의 필요성, 지리적 적합성, 사업성 등 충분한 근거를 들며 A지역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른 지역의 의원이 “A지역에 지역구를 둔 당신이 A지역에 신공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구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반박은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를 살펴보려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처한 정황만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정황적 오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황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논증은 실질적인 전제가 존재하지 않아 합리적 결론도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리적인 논증을 위해서는 논증의 주장에 해당하는 결론이 무엇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어떠한 쟁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 ‘증명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결론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하며 전제와 결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논증의 구조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논증의 쟁점을 파악하고 전제와 결론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후술하는 ‘IV. 좋은 논증을 위한 합리적 사고방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6) 정황적 오류의 정의는 이창후(2011), 115-116쪽을 참조했다.

4. 피장파장의 오류(Fallacy of Tu Quoque)

피장파장의 오류는 자신의 주장이나 행동이 비록 잘못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괜찮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¹⁷⁾이다.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논증을 반대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안 그래?” 또는 “너도 똑같잖아!”와 같은 식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2014년 일본의 공영방송사 NHK의 회장 모미이 가쓰토(Momii Katsuto)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고 독일과 프랑스에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를 정당화하려고 했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 프랑스도,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도 군내 성매매 조직이나 강제 성노예가 존재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피식민지의 여성들을 강제동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프랑스도 독일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왜 일본만 문제 삼느냐는 식의 주장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 역시 피장파장 오류에 해당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던 취재·보도관행상의 문제점이 표면 위로 떠올랐다. 재난보도에서 사실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가 배제된 채 출입처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다른 언론의 기사를 재편집해 내보내는 바람에 오보가 넘쳐났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러한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언론사도 이런 관행을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것이다.

한때 이치에 맞던 관행이나 전통도 사회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고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잘못된 관행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이런 관행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런 전통을 재평가하고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신뢰할 만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 논증을 펼치기 위한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논증의 전제 모두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 전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이지?”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제를 뒷받침하는 알맞은 근거와 정보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

17) 이창후(2011), 118쪽.

이는 설득에 나서기 전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전제들이 믿을만한 출처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려내고, 잘 알려진 사례들을 설득의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전제들 가운데 있는 오류를 수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그래서 더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5. 다의어 사용에 의한 오류(Fallacy of Equivocation)

다의어 사용에 의한 오류란 두 가지 이상의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나 구절의 뜻을 분명하게 정의내리지 않고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고의적이든 우연의 일치든 표현이나 단어가 가져오는 전제의 모호성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만드는 논증의 오류를 말한다.

한 예로 단어 ‘라이트(Light)’는 대개 ‘성분이 적게 함유된’이라고 정의되는데, 필립 모리스(Philip Moris)사는 담배에 ‘라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보통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하도록 광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¹⁹⁾ 이에 필립 모리스사의 대변인은 ‘라이트’는 성분의 함유량과 같은 내용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담배의 맛을 지칭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다의어 사용에 의한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흡연자들이 ‘라이트’ 담배를 구매한 이유는 타르나 니코틴을 덜 함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담배회사도 그것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흡연자들은 ‘라이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혼동해 ‘라이트’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덜 해로운 것이라 생각하며 흡연을 합리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미국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은 올해 5월, 담배에 ‘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덜 해로운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²⁰⁾

문장 속 다의어는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보고 맥락을 살펴보면 정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두로 전해 듣는 상대방 주장 속 다의어는 흐름에 의존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 상대방의 표현에 모호함이 포착된다면 말이 나온 즉시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며 대화를 주고받아야 오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18) 다의어 사용에 의한 오류에 대한 내용은 송하석(2010), 170쪽을 참조했다.

19) 이 사례는 Cavender, N. and H. Kahane(2013), 125-126쪽을 참조했다.

20) 참고로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사는 판결에 불복해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IV. 좋은 논증을 위한 합리적 사고방법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오류란 불완전한 논증의 방식, 잘못된 생각의 진행방식이다.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좋은 논증의 기준을 무엇일까.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논증의 타당성 · 건전성 점검하기

논리학에서는 좋은 논증을 ‘타당성’과 ‘건전성’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했다.²¹⁾ 먼저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제가 참인 경우에 결론도 반드시 참인 논증을 타당한 논증이라고 한다.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인 사례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타당성은 논증을 구성하는 전제와 결론이 실제로 참인지 아닌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전제와 결론이 실제로는 모두 거짓이지만 논증이 타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장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논증이 타당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어진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즉 어떤 논증의 결론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논증의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타당성을 가져야 할뿐만 아니라,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된 전제 역시 참이어야 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타당하고 논증에 사용된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 논증을 건전한 논증이라고 한다.

[전제1] 만일 국제 평화가 유지된다면, UN은 불필요하다. 또 만일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난다면, UN은 전쟁 방지라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전제2] 국가 간에는 평화 아니면 전쟁 상태만 존재한다.

[결론] 따라서 UN은 불필요하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전제1]과 [전제2]가 참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참이 된다. 그러므로 이 논증은 타당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두 전제에 대

21) 논증의 타당성 · 건전성에 관한 정의와 사례는 송하석(2010), 39-41쪽을 인용했다.

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UN의 목적이 단순히 전쟁 방지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국가 간에는 평화 아니면 전쟁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긴장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전제1]과 [전제2]를 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증은 형식적으로 타당성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건전성이라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2. 5Whys, ‘왜 그렇지?’라고 질문하기

‘5Whys’ 방식은 간단히 말하면 ‘왜’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다.²²⁾ ‘왜 그렇지?’라고 질문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답이 나오면 또 다시 그 답에 대해 ‘왜 그렇지?’라고 묻는다. 그러나 질문에 대해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멈추어야 한다. ‘왜 그렇지?’라고 묻는 것을 중지하거나 이전 단계로 돌아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답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다섯 번 정도 반복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데 충분하다고 해서 ‘5Whys’ 방식이라고 부르지만 반드시 다섯 번만 할 필요는 없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 그렇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해 나가다 보면 논증의 전제를 밝혀낼 수 있다. 즉 ‘왜 그런 일이 발생했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적 원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쟁점이 갖고 있는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수단이 되어 논증이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하거나,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상품의 매출이 왜 저하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문제에 대한 추정원인이 몇 가지 떠오를 것이다. 그러면 그 각각의 추정원인에 대하여 ‘왜 그렇지?’라고 또 묻는다. 이런 과정을 거듭하면 곧 문제의 하위요소이자 근본적인 원인이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5Whys’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사자가 가설을 세우고 논리를 전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피해가도록 도와주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연관관계가 있는 연결고리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다.

22) ‘5Whys’ 방식에 대한 내용은 이상협(2011), 250-253쪽, 테루야 하나코·오키다 케이코, 2001, 『로지컬 씹킹』, 김영철 역(일빛), 114-118쪽을 참조했다.

3. ‘MECE’ 방식으로 사고하기

어떤 쟁점을 주제로 삼아 논리적으로 사고를 전개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그 쟁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각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지 못하도록 일부 누락된 것이 있거나 혹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분의 합이 전체를 이루고도 남아서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 중복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생긴다면 이는 충분한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이를 도와주는 논리적 사고법을 ‘MECE’ 방식의 사고라고 한다. ‘MECE’란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약자인데 번역하면 상호 배타적이면서 누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빠진 것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²³⁾ 논리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하려면 사고의 틈이 없어야 하는데 ‘MECE’는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MECE’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부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서에 입수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가정했을 때 ‘MECE’ 방식을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²⁴⁾ 우선 정보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정보, 공개된 또는 비공개된 정보, 유료 또는 무료 정보, 업계에 관한 정보 또는 관련되지 않은 정보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것으로 가장 범위가 큰 카테고리의 누락과 중복은 피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정기적인 정보를 월간, 격 주간, 주간 등의 빈도로 정리한다. 부정기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인터넷 게시형, CD, 비디오, 그리고 인쇄매체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큰 범주에서부터 범위를 좁혀가며 정보를 분류하면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 간결하지만 포괄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4. ‘로직트리(Logic Tree)’로 쟁점의 구조 파악하기

논리적 사고를 도와주는 컨설턴트들은 ‘Do not boil the ocean!(바닷물을 전부 끓일 필요는 없다!)’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²⁵⁾ 어떤 문제를 분석할 때도 모든 쟁점을

23) ‘MECE’ 방식에 대한 내용은 이상협(2011), 271-273쪽을 참조했다.

24) 이 사례는 안병진·김상익(2012), 91-92쪽을 주로 참조했다.

25) 로직트리에 대한 내용은 이상협(2011), 291-297쪽, 강태완, 2013, 『논리는 개발이다』(룩스문디), 47-48쪽을 참조했다.

분석할 필요는 없다. ‘MECE’ 방식을 통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 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논점과 중요하지 않은 논점을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때 유용한 것이 로직트리인데 복잡한 문제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도식화하는 사고를 위한 도구다. 로직트리는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거쳐 꼭대기에 이르는 논리의 전체 구조를 정리해,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로직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논점 분류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 기준은 ‘내가 왜 로직트리를 만드는가’ 하는 목적의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뒷받침 되어야만 찾아낼 수 있다. 로직트리의 목적에 따라 분류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준이 바뀌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다른 로직트리가 나온다. 그 다음 기준들 중에서도 중요한 기준은 우선순위에 두고 개별적 쟁점들에 대해 논증을 해 나가다 보면 이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로직트리가 유용한 이유는 첫째 사고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버릴 염려가 없다. 근거 없는 결론이 도출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로직트리란 논리를 통해 구성요소들을 분해해 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둘째 짧은 시간 안에 쟁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원인을 밝히거나 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인과관계 역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논리적 명쾌함이 전제된 사고를 종이 위에 펼쳐 놓은 것이 로직트리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사람들은 설득과정에서 종종 논리적 오류를 범하며 매우 불완전한 사고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함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지식과 논리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살펴본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원인,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의 종류 그리고 합리적 논증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고 실전에 적용해 보는 것은 좋은 설득가가 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연습하는 방법도 좋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이 진실인가? 편견과 같은 오류가 개입되

어 있지는 않은가?’라고 스스로 질문에 질문을 거듭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고, 내가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겸손한 마음, 자신이 가진 한정된 지식과 경험을 던고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려고 시도하는 열린 자세야말로 설득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논리적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